
새시대 교수법 154호 한국공학교육기술학회 / 조벽

Eyes see only what the mind is prepared to comprehend.

-- Robertson Davies

TP or not TP 4. 줌-인, 줌-아웃

지난 호에는 학습 목표에 따라 TP 사용 방법이 달라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저는 TP를 사용하는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사용 전략을 달리 구사합니다.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를 줌-인과 줌-아웃을 써서 원하는 효과를 내듯이 TP 역시 내용을 확대하는 줌-인(클로즈업)과 큰 그림을 담아내는 줌-아웃(파노라마)이 있습니다.

(1) 줌-인 (zoom in)

줌-인의 목적은 강의 내용을 보완하기, 상세히 보여주기,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기 등입니다. 특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림이나 도표나 차트 보여주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확대의 개념을 지녔습니다.

예를 들자면 제트 엔진의 원리를 설명하고자 할 때 엔진 그림을 보여주는 경우입니다. 학생들은 자동차 엔진은 흔히 봐서 말로만 해도 엔진 모양이 머리 속에 쉽게 떠오르겠지만 제트 엔진을 본 학생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. 이 때 제트 엔진 그림을 TP로 보여주면 효과가 있겠지요. "엔진"이라는 말 한마디를 TP 한 장, 또는 여러 장으로 확대해서 설명해주는 셈입니다.

'줌-인' TP의 특성은 정보가 많고 구체적인 동시 정보의 hierarchy가 없다는 것입니다. 따라서 학생들은 무엇부터 봐야할지 모릅니다. 다 중요하게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. 그래서 고급 학생들에게 주시해야 할 부분을 손이나 레이저 포인트로 지적하면서 설명하시는 것이 바

람직합니다. 즉 학생들의 시각을 교수님께서 확실하게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.

(2) 줌-아웃 (zoom-out)

줌-아웃의 목적은 강의의 여러 소주제나 개념들의 연관성을 한 눈으로 보여주기, 순차적으로 전개된 강의 내용을 다차원으로 다시 정돈하여 보여주기, 강의 차례 적어두기, 강의를 요약하기 등입니다. 그리고 전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"개념지도"와 "큰 그림"도 여기에 해당됩니다. 확대의 개념을 지닌 '줌-인' TP와 반대로 '줌-아웃' TP는 축소의 개념을 지녔습니다.

'줌-아웃' TP의 특징은 많은 내용이 압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. 10~20분이나 말로 설명한 내용이 TP에는 하나의 단어, 또는 한 단락으로 축소되어 있으니 말입니다. 바로 여기에 '줌-아웃' TP의 효력이 있는 것이지요. 한 개념에 대해서 10분씩이나 설명을 듣고 있는 동안 그 전에 설명되었던 다른 개념들이 희미해져버리거나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지 모르게 될 수 있습니다. 이 때 '줌-아웃' TP를 사용하여 연관성을 보여주면서 강의를 하시면 학습 내용이 토막이 나버리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.

© 조벽, 2002

이전 발간물은 웹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.

<http://www.me.mtu.edu/~peckcho/korean.htm>

이 무료 간행물을 직접 받아 보시기 원하시면 subscribe teachwell-1 을 적어 peckcho@mtu.edu로 보내시면 자동 가입됩니다.

가입을 취소하실 경우에는 unsubscribe teachwell-1 을 적어 peckcho@mtu.edu로 보내시면 됩니다.

다른 사항은 조 벽 교수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peckcho@mtu.edu 전화: 미국(906) 487-2891 팩스: (906) 487-2822